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서영대학교)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송대 유학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2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석사·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국내 석·박사논문,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2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원대(元代) 유학 관련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50편이다. 2019년 21편, 20년 10편, 21년 43편과 비교했을 때 편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전에 없던 진단, 양만리, 유자휘, 위료용에 관한 논문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북송시대 유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 소식(동파, 1036-1101), 소철(난성, 1039-1112), 사랑좌(상채, 1050-1103), 남송시대 유학자인 유자휘(병산, 1101-1147), 호굉(오봉, 1105-1161), 양만리(성재, 1124-1206), 주희(회암, 1130-1200), 육구연(상산, 1139-1192), 진량(용천, 1143-1194), 위료용(학산, 1178-1237), 오징(초로, 1249-1333)에 관한 논문 등 총 16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과 어떠한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이기론, 3)심성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와 관

런된 경우에도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분석·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총 50편의 논문 중 경전과 개념을 주제로 한 논문 2편을 제외한 48편으로 일반논문 39편과 학위논문 11편이다. 따라서 48편의 논문을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소식, 소철, 사랑좌, 유자휘, 호굉, 양만리, 주희, 육구연, 진량, 위룡용, 오징 등 16명의 송대 유학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의 소옹 1편, 주돈이 5편, 장재 2편, 정호 2편, 정이 1편, 소식 1편, 소철 1편, 사랑좌 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유자휘 1편, 호굉 1편, 양만리 2편, 주희 28편, 육구연 1편, 진량 1편, 위룡용 1편이 있고, 원대의 오징 1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주돈이에 관한 논문 3편, 정호와 정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4편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사랑좌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1편, 진량에 관한 논문 1편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1)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미숙	邵雍《皇極經世》의 體用論的 數理體系와 陰陽論的 解析	동아인문학 제60집	동아인문학회

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옹 철학을 ‘체용일원’의 관점에서, 수리(數理)에 근거한 ‘체’와 ‘용’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 실제적 작용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전 소옹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석사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2) 주돈이(염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王晚霞	周敦颐《太极图》道教解探析	울곡학연구 제50집	(사)울곡학회
2	최정목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 이해	유학연구 제5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이천수	주렴계 사상의 연구 - 「太極圖說」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4	피재우	周敦頤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학위논문(박사)	대구: 대구한의대 학교 일반대학원
5	송 미	주돈이 이학(理學)사상이 아동 심미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방문화 대학원대학교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모두 5편으로 일반논문 2편과 박사 학위논문 3편으로 「태극도」,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수양론, 이학 사상과 아동 심미 교육의 연관성 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4편이 발표되었다.

3) 장재(횡거, 1020-107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종원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그 모호성 — 건문지와 덕성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110 집	동양철학연구회
2	황종원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그 생태 철학적 의미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 회

장재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주 내용은 각각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핵심 내용을 천도론, 인성론, 수양론의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이전 장재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 2편 발표되었다.

4) 정호(명도, 1032-108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민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顥)	도덕교육연구 제34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	김수길	이정의 경설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호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한 편은 본성과 교육과의 관계를 마리땡과 정호의 이론으로 설명한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정호와 정이의 경설(敬說)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호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5)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길	이정의 경설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정호와 정이의 경설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이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6) 소식(동파, 1036-1101)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소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 소철로 대표되는 축학(蜀學)과 호굉(胡宏)으로 대표되는 호상학(湖湘學) 사이의 본성론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소식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0년에 소식의 인성론에 관한 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도 1편이 발표되었다.

7) 소철(난성, 1039-111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소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 소철로 대표되는 촉학(蜀學)과 호굉(胡宏)으로 대표되는 호상학(湖湘學) 사이의 본성론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소철에 관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8) 사랑좌(상채, 1050-110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현	사랑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랑좌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1편으로 『상채어록(上蔡語錄)』을 중심으로 사랑좌의 본체론, 심성론, 수양론 등의 철학적 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이전 사랑좌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9) 유자휘(병산, 1101-114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 종고의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유자휘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대혜 종고의 유자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철학사상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분석하였다. 이전 유자휘에 관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10) 호굉(오봉, 1105-1161)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형석	호굉 철학의 경학 기초 - 『지언』의 춘추학과 역학-	유학연구 제61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호굉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호굉 철학 체계가 가학(家學)인 춘추학의 성취를 포괄하며 「건괘」 「단전」의 4가지 명제로 통합, 귀결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기존의 심성론 위주의 호굉 철학연구와 다르게 서술하였다. 이전 호굉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 발표되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1) 양만리(성재, 1124-120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楊萬里的 義理易學과 明易達史의 방법론 - 역사콘텐츠적 접근	공자학 제48호	한국공자학회
2	정소영	성인사관에서 본 양만리의 사사역학(史事易學)과 역사의식의 세계	유학연구 제6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양만리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한편은 역학의 응용 분야에서 역사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만리의 의리 역학과 사사 역학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은 양만리의 역사의식의 세계를 성인 사관으로 서술하였다. 이전 양만리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12) 주희(회암, 1130-1200)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운	리인(利仁)과 안인(安仁) - 윤리적 태도와 이념에 관한 주자의 인식전환 고찰 -	동방학 제4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나운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양명학 제65호	한국양명학회
3	김나운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4	김동현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	학위논문(박사)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5	김정각	『太極圖說』의 宇宙論과 朱熹 理本體論의 관계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6	김중용	지늘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7	김철호	주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론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90집	한국유교학회
8	박길수	주희의 몸과 체인 이론	양명학 제66호	한국양명학회
9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총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방현주	주희 철학에 있어 사단 부중절 문제에 대한 小考	중국학보 제99집	한국중국학회
11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12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	우계학보 제43호	(재)우계문화재단
13	손미애	주희의 미발이발설 연구 - 인심도심과 중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전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14	승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상·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5	왕소유	朱熹 理本論의 서예관 적용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5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16	유 영	주자학 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 I - 심의 주재작용과 분화의 측면에서의 예학 회귀 사조 발생원인 분석 -	퇴계학보 제151집	퇴계학 연구원
17	유현주	朱熹의 『太極圖說』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가치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동양철학연구회
18	이석원	朱熹 생태미학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석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19	이연정	주희 수양체계 고찰 - 치중화(致中和)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0	이연정	주자학의 순자적 음영陰影 - 수양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1	이종우	주희와 왕수인의 미발과 靜의 관계 및 그 공부설 비교	퇴계학논총 제40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2	이종우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울곡학연주 제47집	(사)울곡연구원
23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제76집	열상고전연구회
24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정(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제73집	온지논총
25	임병식	주희 사생관의 인문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 제57집	한국동양철학회
26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 심학과 선(禪)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7	진종원	주희의 격의불교 이해 - 승조, 소식, 호상학의	태동고전연구 제	한림대학교 태

		'동중정(動中靜)'을 중심으로-	49집	동고전연구소
28	한지운	주자(朱子) 「대학장구」 「격물보전장」 학문 체계의 근거에 대한 교육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35권 제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주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8편으로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 4편과 석사학위논문 1편이다. 2022년 발표된 송대 유학관련 전체논문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주희와 서양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의 선악론 비교와 朱熹의 「太極圖說」 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 가치 연구는 매우 새롭다. 이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매년 다른 인물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에는 21편 중 8편을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10편 중 7편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43편 중 22편을 차지하였다.

13) 육구연(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무	『육조단경』 과 육왕(陸王) 심학(心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불경인 『육조단경』 과 육구연의 심학(心學)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2019년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14) 진량(용천, 1143-1194)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태	陳亮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 - 군주론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석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진량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1편으로 진량의 군주론을 가지고 그의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진량에 관한 논문

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15) 위료옹(자호, 1141-122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요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제10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위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위료옹의 저서 『춘추좌전요의』를 가지고 그의 춘추학 사상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전 위료옹에 관한 논문은 국내에서 1편도 발표되지 않았고 2022년 처음 발표 되었다.

16) 오징(초로, 1249-133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 린	오징(吳澄)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의 정주학적 특성	대동철학 제98집	대동철학회

오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오징의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이 정주이학의 주경공부론과 도통론의 특징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전의 오징에 관한 논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없었으나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17)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제균	『대학연의(大學衍義)』 체제의 특징 - 이강령(二綱領)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 88집	동양고전학회
2	신창호 린자바오 예철해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 - 근사록(近思錄)의 인물명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제70집	한국종교교육학회

기타 논문은 2편으로 주로 송대의 저서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논문들이다. 한편은 『대학연의』 체제에 관한 논문이고, 다른 한편은 『근사록』

의 인물평을 가지고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논문이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총 50편의 논문 중 기타 11편을 제외한 39편으로 일반논문 30편과 9편의 학위논문이 있다. 따라서 39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0편, 이기론 4편, 심성론 5편, 수양론 19편, 인식론 1편, 비교 6편이다.

1) 경학(10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현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학위논문(박사)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	김연재	楊萬里的 義理易學과 明易達史의 방법론 - 역사콘텐츠적 접근 -	공자학 제48호	한국공자학회
3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총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제 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박제균	『대학연의(大學衍義)』 체제의 특징 - 이강령(二綱領)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 88집	동양고전학회
5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6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재)우계문화재단(등재후보)
7	임형석	호굉 철학의 경학 기초 - 『지언』의 춘추학과역학-	유학연구 제6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오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제10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	정소영	성인사관에서 본 양반리의 사사역학(史事易學) 과 역사인식의 세계	유학연구 제6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한지윤	주자(朱子) 「대학장구」 「격물보전장」 학문체 계의 근거에 대한 교육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35권 제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주로 『주역』, 『춘추』, 『대학』, 『중용』, 『논

어』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주역』 4편, 『춘추』 2편, 『대학』 2편, 『중용』 2편, 『논어』 1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주역』 관련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고 『춘추』, 『대학』, 『중용』 관련 논문이 각각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경학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3편, 2021년 11편이 있다.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각	『太極圖說』의 宇宙論과 朱熹 理本體論의 관계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2	박지현	시량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3	이천수	주례계 사상의 연구 - 『太極圖說』 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4	최미숙	邵雍 <皇極經世>의 體用論的 數理體系와 陰陽論的 解析	동아인문학 제60집	동아인문학회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음양, 태극, 이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이기론 관련 논문은 2019년 4편, 2020년 1편, 2021년 4편이 있다.

3) 심성론(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운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	손미애	주희 미발이발설 연구 - 인심도심과 중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	전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3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4	유영	주자학 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 I - 심의 주재작용과 분화의 측면에서의 예학 회귀 사조 발생원인 분석 -	퇴계학보 제151집	퇴계학연구원
5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심성론(心性論), 인심도심(人心道心), 의(意), 성(性)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심성(心性) 2편, 심(心) 1편, 의(意) 1편, 성(性)

1편이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3편, 2021년 7편이 있다.

4) 수양론(19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윤	리인(禮仁)과 안인(安仁) - 윤리적 태도와 이념에 관한 주자의 인식전환 고찰 -	동방학 제4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나윤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양명학 제65호	한국양명학회
3	김나윤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4	김수길	이정의 경설(敬說)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5	김진무	『육조단경』 과 육왕(陸王) 심학(心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6	박길수	주희의 몸과 체인 이론	양명학 제66호	한국양명학회
7	박지연	시량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8	방현주	주희 철학에 있어 사단 부중절 문제에 대한 小考	중국학보 제99집	한국중국학회
9	송 미	주돈이 이학(理學)사상이 아동 심미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10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 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1	이연정	주자학의 순자적 음영陰影 - 수양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2	이연정	주희 수양체계 고찰 - 치중화(致中和)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13	이종우	주희와 왕수인의 미발과 靜의 관계 및 그 공부설 비교	퇴계학논총 제40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4	이종우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을곡학연구 제47집	(사)을곡연구원
1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제 76집	열상고전연구회
16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靜(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제73집	온지학회
17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 심학과 선(禪)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18	피재우	周敦頤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학위논문(박사)	경산: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19	홍린	오징(吳澄)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의 정주학적 특성	대동철학 제98집	대동철학회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수양·수양론, 심학(心學), 존덕성(尊德性), 미발 공부, 경(敬)공부, 체인(體仁), 중화(中和) 도덕실천, 교육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수양·수양론 6편, 심학 2편, 존덕성 1편, 미발 공부 4편, 경공부 1편, 중화 2편, 도덕실천 3편, 교육 1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수양·수양론 관련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미발 공부 관련 논문이 4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수양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2편, 2021년 10편이 있다.

5) 인식론(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종원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그 모호성 — 견문지와 덕성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 110집	동양철학연구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견문지(見聞知)와 덕성지(德性知)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지식론의 특징과 그것이 정주리학에 일으킨 여파를 밝히려고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인식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1년 1편이 있다.

6) 비교(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민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顥)	도덕교육연구 제 34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	김종용	지논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3	김철호	주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론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90집	한국유교학회
4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5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	우계학보 제53호	(재)우계문화재단(등재후보)
6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 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비교에 관한 논문은 모두 6편으로 모두 인물과 인물의 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동양 사상가와 서양 사상가의 비교가 2편, 승려와의 비교가 1편, 한·중·일 사상가의 비교가 1편, 경전주석의 비교가 1편, 중세 사상가와 근대사상가의 비교가 1편이다. 그중 동양 사상가와 서양 사상가의 비교가 2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비교 관련 논문은 2019년과 2020년에는 1편도 없었으며 2021년 8편이 있다.

7) 기타(1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태	陳亮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 : 군주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	신창호 린자바오 예철해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 : 근사록(近思錄)의 인물평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70집	한국종교교육학회
3	왕소유	朱熹 理本論의 서예관 적용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5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4	王曉霞	周敦頤 《太極圖》 道敎解探析	울곡학연구 제50집	(사)울곡학회
5	유현주	朱熹의 「太極圖說」 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가치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동양철학연구회
6	이석원	朱熹 생태미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7	이원석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 종교의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8	임병식	주희 사생관의 인륜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 제57집	한국동양철학회
9	진종원	주희의 격의불교 이해 -승조, 소식, 호상학의 '동중정(動中靜)'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최정묵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 이해	유학연구 제5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황종원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그 생태 철학적 의미	한국철학논집 제7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위에 제시한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기타 논문은 2019년 5편, 2020년 1편, 2021년 8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22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총 50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김나운의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意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과 이종우의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1) 김나운의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意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이 논문은 주자학의 현대적 연구 과정에서 몇몇 학자들은 ㄹ[知]을 강조하는 주자의 이론 체계가 도덕실천을 이끄는 동력에 관하여 선명한 설명을 보여줄 수 없고, 또 그 이론 체계 내에서는 주체 내부의 도덕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검토하고, 심(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작용과 기능 가운데 특히 ‘심이 발한 것[心之所發]’으로서의 의(意)개념에 주목하여 의(意)와 지(知)의 관계 및 ‘성의(誠意)’의 공부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주자의 도덕실천론에서 의(意) 개념이 동력으로서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도덕실천동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는 주자의 이론 체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성적 인식’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행위에 이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자학의 ㄹ(知)에 해당하는 심(心)의 작용 이외에도 실천과 관련된 작용인 의(意)가 있어 ㄹ(知)과 함께 인간의 도덕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意)는 의념(意念)이 아니라 실천과 관계를 맺는 동력인 ‘의지’ 이고 이것은 이성과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합목적적이고 장기적인 행위를 추동하도록 하는 또 다른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의’ 의 ‘의지’ 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제3장에서는 주자에게서의 의(意)는 심의 작용으로서 활동성을 지니는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인 지(知)의 능력에 더해 실천력을 부여하여 인간의 굳건한 도덕적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구체적인 역할은 바로 인간의 행위, 특히 도덕실천으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의(意)’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계교상량(計較商量)이고 다른 하나는 호오(好惡)에 대한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意)’가 항상 도덕적 완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제4장에서는 성의(誠意)라는 공부론을 가지고 도덕적 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의(誠意)공부에 대해 “성의(誠意)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 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도덕실천 문제에서 동력을 해명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모습과 악취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의욕해 나가게 하는 것이 성의(誠意) 공부의 내용이다. …… 즉 마음의 본래적 능력인 의(意)를 본성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의(誠意)이다.” 라고 하면서 성의(誠意)가 “의(意)와 리(理)의 합일이고, 곧 심여리일(心與理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자의 도덕론의 체계가 “절대적 도덕성인 리(理)와 주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립된 도덕실천론의 한 형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을 통해 주자학의 도덕론은 지(知)와 의(意)가 상보(相補)하여 리(理)를 실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논지가 명확하고 원문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다. 특히 주자의 ‘의(意)’와 ‘성의(誠意)’ 개념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종삼(牟宗三)이 제기했던 “정주계열이 초월적인 리(理)와 후천적인 심(心)의 대립 구도 하에서 리(理)를 경험의 대상으로 삼아, 심(心)이 리(理)를 인지하고 리가 심을 초월적으로 이끄는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타율 도덕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주자의 이론이 진정한 도덕 행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동력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평가에 대해 합당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보인다.

2) 이종우의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이 논문은 주희가 미발(未發)시의 중(中) 뿐만 아니라 부중(不中)도 있고, 이발(已發)시에도 중절(中節) 뿐만 아니라 부중절(不中節)도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아, 이것이 『중용』에 미발의 중과 이발의 중절에 대한 확장이라면서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에 잘 드러난다. 먼저 제2장인 “미발시 부중”의 서술 내용이다. 첫째, “미발”과 “중”에 대해 주자의 글을 인용하여 “중”은 불편불의(不偏不倚)하고 과불급(過不及)이며 “미발”은 정(靜)이고 지각불매(知覺未昧)와 사려미맹(思慮未萌)이다. 둘째, 주희의 미발시의 중(中) 뿐만 아니라 기질(氣質)의 어둡고 탁함으로 인해 미발시의 부중(不中)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중용』에서 미발(未發)의 중(中)의 확장이며, 이러한 주희의 미발시 부중은 『중용』 1장의 미발시의 중을 주석한 이후에 쓴 글로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다. 셋째, 미발시 부중의 상태에서의 공부는 존양(存養)과 계신공구(戒愼恐懼)인데 이러한 미발시 공부를 통하여 중인(衆人)도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바꿀 수 있고, 이 때문에 미발시에도 혼탁하지 않게 되고 편(偏)을 정(正)으로 바꿀 수 있다. 넷째, 부중은 『맹자』에서 미발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활쓰기에도 해당되는 용어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활을 쏘서 가운데 맞히지 못한 부중(不中)을 인간의 마음에 적용한다면 이발에 해당되고 이발의 부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필자는 미발시에도 부중이 있는데, 이는 기질의 탁함으로 인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음은 제3장인 “이발시 부중절”의 서술 내용이다. 첫째, 이발시의 중절과 부중절에 대해 주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현되어 중절한 것은 선(善)이고 부중절한 것은 악(惡)이며 중절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올바름[正]을 얻은 것으로 화(和)이고 부중절은 부정(不正)이므로 불화(不和)이다.”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 둘째, 주희가 부중절의 이발을 말한 것은 『중용』에서 중절의 이발을 확장 시킨 것이다. 셋째, 이발시의 중절은 시중이고, 이러한 시중(時中)은 하나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희노애락이 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넷째, 시중(時中)은 맹자에 나오는 권도(權道)과 같다. 다섯째, 사단(四端)에는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여섯째, 미발시의 공부

인 존양(存養)과 이발시의 공부인 성찰(省察)은 모두 “경(敬)” 공부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聖人)은 미발시 중이기 때문에 이발시에도 중절이 되지만 중인(衆人)은 미발시에 중(中)뿐만 아니라 부중(不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발시에 화(和)가 되기도 하고 부중절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주희의 미발시의 부중과 이발시의 부중절에 대하여 자세히 논했으며 더 나아가 미발시의 중과 부중을 성인·중인과 연결하여 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술된 논문의 내용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논문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이 다르다. 논문의 제목은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인데 2장과 3장의 제목은 각각 “미발시 부중” 과 “이발시 부중절” 로 되어 있다. 둘째, 필자는 위 논문에서 “미발의 부중”, “미발시의 부중”, 혹은 “부중의 미발” 을 같은 의미로 판단하여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미발시의 부중” 혹은 “미발시 부중” 이다. 여기에서 “부중의 미발” 은 잘못된 표현이다. “미발” 이란 아직 마음이 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았는데 “부중” 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발” 의 상태에서는 “중” 인지 “부중” 인지 알 수 없고 “이발(已發)” 의 상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필자는 주희의 “측은(惻隱)과 수오(羞惡)는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측은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측은해하고, 수오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오하면 부중절하다.” 라는 말에 대해 “사단(四端)이라고 해서 ‘중절’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단(四端)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절(中節)은 선(善)이고 부중절(不中節)은 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단(四端)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단서가 되는 네 가지 마음이다. 주자학에서 사단(四端)은 순선(純善)하고 칠정(七情)은 유선유악(有善有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사단(四端)이 정(情)으로 드러날 때, 어떤 때는 선(善)이 되고 어떤 때는 악(惡)이 된다. 즉, 사단을 유선유악(有善有惡)으로 파악한 것은 주희의 사단(四端說)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넷째, 필자는 본 논문에서 많은 주희의 말을 들어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인용한 원문 중 원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맥락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주희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 예로 주자의 “미발시 스스로 하는 공부를 얻지 못한다[若未發時, 自著不得工夫].”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성인이 미발시에 이미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래의 내용은 “미발시에는 본래 공부를 붙일 곳이 없다. 미발시에는 요순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까지 모두 한가지이다[若未發時, 自著不得工夫. 未發之時, 自堯舜至於塗人, 一也].” 라는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2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세 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2022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학위논문 11편을 포함하여 총 50편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2019년 21편, 2020년 10편, 2021년 43편으로 논문 편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 인물별 분류에서는 총 50편의 논문 중 어떤 인물에도 속하지 않은 논문 2편을 제외한 48편의 논문을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소식, 소철, 사랑좌, 유자휘, 호굉, 양만리, 주희, 육구연, 진량, 위룡용, 오징 등 16명의 송대 유학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의 소옹 1편, 주돈이 5편, 장재 2편, 정호 2편, 정이 1편, 소식 1편, 소철 1편, 사랑좌 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유자휘 1편, 호굉 1편, 양만리 2편, 주희 28편, 육구연 1편, 진량 1편, 위룡용 1편이 있고, 원대의 오징 1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주돈이에 관한 논문 3편, 정호와 정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4편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사랑좌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1편, 진량에 관한 논문 1편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희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도의 아주 고무적

인 일은 이전에 비교적 연구가 적었던 사랑좌, 유자위, 양만리, 진량, 위료용 등과 같은 인물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50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 7가지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많은 논문이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0편, 이기론 4편, 심성론 5편, 수양론 19편, 인식론 1편, 비교 6편, 기타 11편이다. 위에서 제시한 논문 편수를 보면 수양론의 논문이 가장 많고 이기론과 인식론의 논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경학 3편, 이기론 4편, 심성론 3편, 수양론 3편, 인식론 3편, 기타 5편으로 비교 관련 논문이 없었으며, 2020년에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10편으로 경학 3편, 이기론 1편, 심성론 3편, 수양론 2편, 기타 1편이며 인식론과 비교 논문은 없었다. 2021년 발표된 논문 편수는 43편으로 경학 11편, 이기론 4편, 심성론 7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1편, 비교 8편이며 경학과 수양론의 논문이 많다. 2021년도와 비교해 보니 2022년의 논문 중에 수양론 관련 논문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김나윤과 이종우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50편이 발표되었다. 2019년 21편, 2020년 10편, 2021년 43편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일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송대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과가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